**일병목회강좌 사무엘서 1강**

정리 : 최희영 목사

**1. 한나의 기도 (삼상2:1-10)**

-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닌 다윗인데도 책 제목을 사무엘로 붙인 역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가문이나 조건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① 거룩하신 하나님, 한나와 마리아의 고백**

-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은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매우 흡사하다.

• 우리 생각을 뒤집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장면과 그들의 기도에 담겨 있어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려 한다.

-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도덕성의 차원이 아니라 상상을 넘어선다, 특별하다는 뜻이다.

• 인생이 아니며,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며, 적극적으로 복된 의미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멋대로는 더 귀한 것, 더 선한 것을 위하여 원칙 위에 더 쌓는 멋대로이다.

**② 역설과 반전, 거룩이 계시되는 양상 (눅2:46-55)**

- 우리의 원칙과 이해라는 한계로부터의 탈피와 도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 역사는 말이 안되게 흐르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영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언한다.

- 역설이 등장해 우리가 아는 생각을 깨뜨린다. 우리가 아는 선이나 악이 끝이 아닌, 반전이 있다.

• 마리아의 고백은 처녀가 잉태한 것을 겪는 것이 재앙이 아니며 손해가 아니라는 증언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이다.

**2. 복음, 기독교 신앙의 중심**

**① 하나님의 작정 (요3:16)**

- 예수, 믿음,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이다.

• 실제로 복음을 제시하거나 확인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좋고 나쁨에 사활을 건다.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의도이며 의지이다.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선언이다.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구원을 베푸실 때도 그의 의지와 권능을 동원해 일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부르며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한다.

- 하나님이 창조 때 모든 것을 기뻐하신 것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신 진심과 권능과 의지와 거룩하심 |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적 권세 | 으로 구원을 이루기로 하셨다. (엡1:3-6)

**② 하나님의 일하심 (롬8:24-38)**

- 어떤 신이 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신자를 위해 못박혀 죽으며 자신을 믿으라 하는가?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서 모든 것에 배신, 비겁, 무지, 거짓말, 위선, 원망 등 뭐든 다 갖다 붙여보라.

•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도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내가 저지른 모든 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귀결된다는 말까지 기억하라.

• 자책에 사로 잡히지 말고, 복음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와 성실하심을 알아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안목을 가지라.

-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것들이 모두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의 결과이다.

•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 하나님이 운명을 잡고 계시고, 그의 모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랑과 구원과 영광을 만들어 내신다는 약속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목으로 이 약속을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

-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다만 죄 있는 자리에서 죄 없는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항복과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의 사람으로 목적하는 것이다.

- 신자들이란, 각각의 외모와 가문과 성격과 혈액형 등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 예수를 주시는 것과 방불한 |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성의와 권능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이들이다.

**③ 생명의 법칙 (롬8:1-2)**

- 세상의 법칙은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 잘못한 것이 잘한 것을 넘어뜨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한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다.

- 우리가 아는 답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무덤에 끌고 가서 보여준다. 모든 것은 결국 무덤에서 끝난다는 것 | 답이 아니라는 것 | 을 보게 한다.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 이 과정 없이 타협하자는 것이 | 구약이 말하는 | 우상이다.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쉬운 것에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④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고전1:18-24)**

-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만들지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며, 밖에서부터 구원이 온다는 뜻이다.

•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에서 예수가 이미 역설이었듯이, 십자가가 | 역설적으로 |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 이스라엘이 하는 증언은, 사람들로 감동하고 이해하라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복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의 권능과 지혜를 동원한 진정한 재창조이며,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⑤ 믿음에서 믿음으로 (롬1:16-17)**

-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적용했다는 뜻이다.

- **믿음은** | a.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b.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가는 과정을 거쳐서 c.실제로 순종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 **하나님의 방법이다.**

• 우리의 방법은 인과율이며, 그 외의 것은 우연과 운명 또는 사고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운명이나 사고를 포함한 모든 변수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⑥ 믿음과 은혜, 그리고 책임 (롬4:1-8)**

-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을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값없이 주셨기에 은혜로 설명되며, 믿음과 은혜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모두 우리의 원인에 의해 결과되거나 보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는 것이다.

• 우리가 만든 원인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가진 어떤 근거의 결실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것이 은혜이다.

• 값없이 받은 것,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려 은혜라 한다. 이를 믿음이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반응의 책임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은혜는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속임수다. (롬6:1)

- 구원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 조건으로서의 책임이 아닌, 구원이 목적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라, 네 인생과 네 존재를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 책임을 지려면 자유가 있어야 한다.

• 자유는 | 책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 더 큰 목적인 사랑을 위해 주어졌다.

**⑦ 자유와 사랑 (롬8:18-21)**

- 사랑은 고통을 오래 참는 것 | long-suffering | 이다.

- 자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존재론적으로 신과 피조물이 대등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을 요구하신다.

• 사랑의 반대는 공포이며, 기독교는 공포일 수 없다. (요일4:18)

- 사랑과 영광이 교차되고,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 우리가 부름 받는다. (요17:20-23)

**3. 복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은 전혀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인간이 하는 가장 깊은 고민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와 인생에 대한 동일한 질문에 귀착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답한 어떤 답도 기독교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만이 영생이다.

-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의 수준 | 벤허 | 이 인간의 정체성이고 속성이어야 한다고 인문학에서조차도 이야기한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라는 말은 인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역사에서도 나온다.

-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이다.

•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관용과 이해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에 있다.

• 공포와 폭력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이 권세를 잡은 곳에서만 그렇다.

• 부활이 권세를 잡은 곳에서는 양보하는 것과 지는 것과 다른 누구를 끌어안는 것이 최고로 위대한 것이며, 이것이 제자도이다.

-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태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며, 인내로 당신의 힘을 보이신다” (로완 윌리암스 | Rowan Williams)는 말은 믿음에 대한 좋은 표현이다. (롬4:18)

- 성경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쓰임 받지 골리앗 죽인 것으로는 인용되지 않는다. 은혜의 설명에서 다윗이 인용된 것도 시편 51편, 40편, 34편이 배경이다.

-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이 무엇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드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질의응답]

-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인간편의 노력을 촉구하는 듯한 느낌

▶ 기도를 소원을 아뢰고 받아내는 자판기처럼 사용했던 부작용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겨서 그렇다. 기도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준비해서 만나는 것이며,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부작용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탓하지 말고 본인은 잘하시라.

- 목사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나

▶ 공부를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는 실제적 방편은 각 과목의 교재이다. 각 과목의 교재를 사용해 해당 과목의 실력이 느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부의 과정을 통해 인성에 깊은 유익을 남긴다. 한국교회의 교재는 과거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결국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다양하게 선택하면 된다.

- 포기해야 하는 세대 속에서도 대범하게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위한 방법

▶ 순서 | 때 | 가 온다.

- 목회자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자세

▶ 현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성도들이 현실일 수 있다. 할 수 없게 가게 된다.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좀 더 쉽고 편안한 결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이다. 책임과 분별과 그래서 가지게 되는 자유와 기회이며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력이다. 연기를 하라. 연기란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훈련이다.